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racters of Reading Theory in the Age of Yi Dynasty

김 수 경(Soo-Kyoung Kim)*

초 록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독서론에 대해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서의 목적, 과정과 방법으로 요약·정리하여, 조선시대의 독서론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전통적인 독서론이 오늘날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에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수기(修己)와 치학(治學), 즉 학문의 과정 그 자체에 독서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서의 과정은 읽을 책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순서를 정해 놓았으며, 또한 책을 읽는 방법은 숙독(熟讀)을, 책 읽는 자세는 도(道)를 실천하는 자세로 정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독서를 득력의 수단으로 생각한 선조들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되 오늘날 독서의 영역은 책읽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넓어져야 하며, 오늘날 독서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인간의 정신적 성숙을 위해 인생의 각 발달단계에 적합한 체계적인 추천도서목록이 다각도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haracters of reading theory in the age of Yi dynasty. Accordingly It is analyzed to the reading theory in work materials of the intellectuals at the age of Yi dynasty that the purpose, process and methods of reading. We have to succeed traditional reading mind that reading(learning) is life namely. Moreover We have to enlighten as to proper reading theory today. Especially we have to develop a good book lists following a grade of development what grown up spiritual mature of life.

키워드: 독서론, 조선시대, 지식인, 독서의 목적, 독서의 과정, 독서의 방법, 독서문화
reading theory, Yi dynasty, intellectuals, the purpose of reading, the process of reading,
the methods of reading, the culture of reading

*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겸임교수(infoseeking@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12월 9일

1. 서론

오늘날 우리 나라에 존경할만한 어른이 없다고 한다. 왜일까?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 지배층들의 행태에 번번이 실망하였으며, 경제우선주의의 국가정책 속에서 나와 우리를 돌아 볼 여유 없이 자본주의 논리에 자식처럼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나마 존경할만한 어른을 찾자 멀리 외국도 기웃거리 보지만 오늘날 경제대국의 공헌자들에 대한 부추김은 있어도 진정한 정신적 지도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허망하게 어떤 희망도 없이 배회해야 할까? 그나마 나는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는 것이 있다면, 책 속의 인물들이라 생각한다. 이는 실존인일 수도 있고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다.

인간의 사상과 인격형성에 있어 책과의 만남, 책을 통한 위대한 인격과 사상과의 만남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인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사상과 학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읽었으며, 그가 읽은 책들이 어떤 계열, 어떤 성격의 것이었고, 독서법과 학문자세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학문내용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지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가 삶을 영위하던 당대의 시대정신과 지적 풍토를 이해하는 데도 일정한 시사를 받을 수 있다(김영 1989, 203-204).

한 인간의 사상과 인격과의 만남, 더 나아가 당대의 시대정신을 읽는 하나의 계기로 선현들

의 독서론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오늘의 어른의 모습, 시대정신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독서론에 대해 그들의 문헌 기록들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독서론에 대해서는 김영(1981, 1983, 1986, 1988, 1989)을 비롯 여러 선학들의 선행 연구(윤병태 1978: 심우준 1974: 이상용 1994: 김오봉 1996, 1997)를 토대로 독서의 목적, 독서의 방법과 독서의 과정 세 가지로 요약·정리하고, 나아가 이러한 전통적 독서론이 오늘날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 독서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여, 집을 나가서는 천하는 뜻있는 벗들과 사귀고 집에 들어와서는 옛 성현들의 책을 읽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신라시대에는 관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독서범위와 수준을 헤아려 인재를 등용하는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여 독서를 권장하고, 고구려 시대에는 태학(太學)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두어 경학(經學)과 문학(文學)방면의 책을 강독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이미 우수한 종이를 만들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드는 등 인쇄술이 발달하여 많은 책들을 간행하였고, 성종 때에는 수서원(修書院)을 창설하고 역사책을 등사 소장하게 하여 열람하게 하였으며, 개성에는 비서원(秘書院)이란 일종의 왕실도서관을 두어 수만 권의 책을 보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독서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성리학이 들어오고 이들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한 신흥사대부계층이 역사담당 계층으로 성장해간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러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서문화는 유학(儒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 선인들이 읽던 책들은 유가서(儒家書)가 대종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독서·토론과 연구·발표도 자연히 유가적인 교육기관인 서당·서원·향교·성균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조는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하고 역대 임금들이 학문을 장려하였으므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서적이 수입되고 국가적인 도서 편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고, 민간에서도 수많은 문집들과 사서(史書)들이 간행되었으며 또한 집현전·홍문관·규장각 같은 일종의 도서관 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문헌들을 수집·정리·보관하고 당시 관료지식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 독서문화를 꽃피웠다.

이들 고려말 조선초에 정치담당계층이었던 신흥사대부는 경제적 기반 위에 독서를 통한 유가 교양을 쌓으면서 관인으로 진출할 것을 꿈꾸었다. 그래서 이들은 유가의 교육목표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위해 먼저 천자문(千字文)을 공부한 다음 유가에서 정한 독서 순서에 따라 소학(小學)을 비롯한 大學·論語·孟子·中庸의 四書와 詩·書·易·禮記·春秋의 五經, 二程全書, 朱子大全, 性理大全 같은 성리학 서적, 自治痛鑑·東國諸史 같은 史書들을 읽었다(김영 1993, 263-264).

3.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성

김영(1993, 164)은 조선시대의 학풍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독서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조선전기 관료사장파의 “입신양명형”의 독서관이나 조선중기 사림도학파들의 “도학주의형 독서관”과 조선후기 실학파의 “문제해결형의 독서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의 중심 사상이었던 성리학이 채 성립되기 전인 조선전기는 제외하고 성리학이 꽃피웠던 조선 중기의 사림도학파와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제시하는 독서의 목적, 독서의 과정과 독서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3.1 사림도학파들의 독서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라면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계 성혼도 율곡의 성리학을 계승 발전시킨 대표적 성리학자라 꼽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의 학문관은 선현의 학(學)과 도(道)를 배우고 본받아 이를 실제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만을 참된 학문으로 여기는 실천주의와 도학주의적 학문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주자(朱子)의 독서론(讀書論)(김영 1989, 205-212)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퇴계(退溪) 이황(李滉)

퇴계 이황(1501~1570)은 우리나라 유학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로 평가되고 그의 학문이 바로 하나의 학(學)을 이루어 ‘퇴계학(退溪學)’으로 불리우고 있다. 퇴계는 주자가 집대성한 성리학 체계를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조선의 현

실에 실천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의 인식 관심은 주자학(朱子學)에 집중되었고, 그의 행동판단 기준은 주자(朱子)였다(김영 1989, 203-225).

1) 독서의 목적

퇴계는 주자학을 통해서 당시 조선사회에 필요한 도리를 추출하고, 그것을 재구성해서 당시 조선봉건사회의 학문발전과 사회안정에 적용하려는 도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과거지학(科擧之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매우 비판적이었다.

요즘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글귀나 외우고 과거를 보는 것만으로 업을 삼으니 이러한 공부는 수양과 실천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은 四書와 朱書같은 聖經·賢傳에 뜻을 두어야 한다. 『居溪集』, 「言行錄 5」, 論科擧之學」

퇴계는 자기 수양을 위해 많은 책을 읽는 가운데, 性理學에는 특별히 마음을 써서 章마다 충분히 이해하고 글귀마다 자세히 알아서, 강론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고 꼭꼭 들어맞게 사용하여 마치 자기의 말을 외는 듯 하였다고 한다.

퇴계는 책이 성현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대했으며, 엄숙한 자세로 그 뜻을 이해하도록 해야지 함부로 고치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옛 경전에 많은 권위를 부여하여, 오늘 의 가치보다 과거의 가치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전제된 것으로, 자연히 학문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제기나 창조적 이론전개보다는 과거의 문헌들을 넓고 깊게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퇴계의 독서관은 기본적으로 주자의 독서관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조선중기 도학과 독서론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독서의 과정

퇴계가 권하는 책들은 小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書經 등의 유교의 기본경전들이었고, 이런 책들 이외에 특히 心經과 주자의 書簡文을 중요시하였다. 퇴계가 보기에는 당시 여러 책들 가운데서 朱子全書의 書簡集보다 더 좋은 책이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주자가 쓴 편지들은 제각기 다른 자질과 병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성질과 증세에 맞는 처방약을 담고 있어서, 그것을 읽는 사람은 자기들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제자가 小學과 近思錄과 心經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퇴계는 小學은 體와 用을 함께 갖추었고, 近思錄은 義理의 精微한 것은 비록 상세하지만 학자들을 깨우치고 분발하게 하는 것이 부족한 듯 하다고 하면서, 초학자가 처음 공부할 때는 心經보다 더 적실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3) 독서의 방법

퇴계는 바람직한 독서의 방법으로 주자와 마찬가지로 熟讀과 精讀을 들고 있다.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 묻는 어느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퇴계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독서의 방법은) 그저 익숙하게 읽는 것 뿐이다. 글

을 읽는 사람이 비록 글의 뜻을 알았으나 만약 익숙하지 못하면 읽자마자 곧 잊어버리게 되어, 마음에 간직할 수 없을 것은 틀림없다. 이미 알고 난 뒤에 또 거기에 자세하고 익숙해 질 공부를 더한 뒤에라야 비로소 마음에 간직할 수 있으며, 또 흐릿한 맛도 있을 것이다 (『國彙集』, 「言行錄1」, 讀書)

속독과 정독의 방법으로 성현의 글을 읽으라고 권한 퇴계는, 읽은 내용을 자기의 내적 체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낮에 읽은 것을 밤에 반드시 생각하고 궁구해 보아야 된다고 하고 앞서 배운 것을 항상 돌아보고 익혀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율곡(栗谷) 이이(李珣)

퇴계와 함께 우리나라 유학사에 쌍벽을 이루면서 주기론적(主氣論的) 입장에서 성리학을 전개한 율곡 이이(1536~1584)도 독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김영 1989, 203-225).

1) 독서의 목적

퇴계는 도(道)에 들어가는 데는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없으며, 이치를 궁구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독서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성현의 마음 쓴 자취와 선악의 본받을 만한 것, 경계할 만한 것이 모두 책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독서와 실천의 긴밀성을 강조한 독서관을 지닌 율곡은 배우는 사람은 항상 마음을 잘 보존하여 사물이 이기는 바가 되지 않게 하고 모름지기 이치를 궁구하여 선을 밝힌 연후야 행할 도가 앞에 있어 진보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읽을 권을 권하고 있다. 사서와 오경을 돌려가면서 널리 읽음으로써 사리를 깨달으면 의리가 나날이 밝아질 것이요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같은 성리학 관계 서적을 틈틈이 정독하여 의리가 항상 주입되도록 하며 남은 힘으로는 역사서를 읽어 고금의 역사적 사건의 변천에 대한 식견을 기를 것이요 잠시라도 이단이나 잡되고 옳지 못한 서적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살펴본 퇴계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율곡의 도학주의적 독서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 독서의 과정

율곡은 독서의 순서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學校模範』이란 글에서 이렇게 펴려하고 있다.

글 읽는 순서는 먼저 小學을 배워 근본을 배양하고 다음에는 大學과 近思錄으로써 그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論語·孟子·中庸 등과 五經을 읽고 史記와 선현들의 性理學을 간간히 읽어 意趣를 넓히고, 식견을 정밀하게 할 것이다. 非聖의 書를 읽지 말고 無益한 글은 보지 말아야 한다(『栗谷集』, 卷14, 「雜著」, 自敬文).

율곡은 『學校模範』뿐만 아니라, 『擊蒙要訣』에서도 독서의 순서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읽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擊蒙要訣』의 독서순서는 다음과 같다.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小學을 읽어 부모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웃어른에게 순종하

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하는 도리를 하나하나 자세히 음미하여 이를 힘써 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大學 및 或問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를 참으로 알아내어 이를 실천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論語를 읽어서 仁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학문의 본원을 함양하는 공부를 자세히 생각하여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孟子를 읽어서 의리를 맑게 분별하여 人慾을 막고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는 說을 하나하나 밝게 살펴서 이를 넓혀 가득히 채워서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中庸을 읽어서 성정의 덕과 미루어 헤아리는 공력과 位의 育의 묘를 하나하나 음미하여 그 뜻을 찾아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小學과 四書를 읽은 다음에는 詩經을 읽어서 성정의 그릇됨과 율바름을 가려 표창하고 경계함을 깊이 궁구하여 감동 분발함으로써 이를 징계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禮經을 읽어서 하늘의 이치와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에 하나하나 그 이치를 궁구하여 서는 바가 있어야 한다. 다음에는 書經을 읽어서 堯·舜과 禹·湯·文·武王이 천하를 다스린 대경륜과 큰 법에 요령을 얻고, 그 근본을 소급해서 구해야 된다. 다음에는 周易을 읽어서 吉凶·存亡·進退·盛衰의 기미를 하나하나 관찰 음미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春秋를 읽어서 성인이 착한 것은 상을 주고 악한 것은 벌하여 어떤 이는 억누르고 어떤 이는 드높여 주어 조정하는 은근한 말과 심오한 뜻을 정밀히 연구하여 간절히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이 五書와 五經을 돌러가면서 널리 읽음으로써 사리를 깨달으면 의리가 나날이 밝아질 것이요, 송나라 때의 선현들이 지은 近思錄·家禮·心經·二程全書·朱子大全·朱子語類와 같은 성리학 관계서적들을 틈틈히 정독하여 의리가 항상 내 마음을 적시 우고 끊임없이 주입되도록 하며, 남은 힘으로는 역사서를 읽어서 고금의 역사적 사건의 변천을 통달하여 식견을 기를 것

이요, 잠시라도 이단이나 잡되고 옳지 못한 저서를 보아서는 안 된다(『栗谷集』, 卷27, 『寧家要訣』, 讀書章).

라고 해서 율곡은 小學·大學·論語·孟子·中庸·詩經·禮經·周易·春秋·近思錄·家禮·心經·二程全書·朱子大全·朱子語類·史書의 순으로 읽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독서의 방법

독서의 방법으로는 율곡도 퇴계와 마찬가지로 精讀과 熟讀의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한 권의 책을 선택하면 숙독하여 뜻을 모두 알아 통달하여 의심이 없게 된 후에 다른 책으로 바뀌 읽을 것이요, 多讀에만 힘을 써서 이것저것 바빠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3) 우계(牛溪) 성혼(成渾)

우계 성혼(1535~1598)은 16세기 후반의 정치·철학·교육·사상·문학 등 다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당시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서 율곡 철학의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우계 성혼이 남긴 『朱門旨訣』에는 학문과 독서의 방법에 관한 그의 견해가 서술되어 있고, 『牛溪先生集』 雜著 篇의 「書室儀」에는 서실에서나 독서 중에 배우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독서준칙'을 제시하고 있다(김오봉 1997, 123-160).

1) 독서의 목적

당시 대부분의 선비들은 독서의 목적을 經典을 통한 성현의 道와 學을 배우는 것 보다 科擧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 立身揚名은 물론 유교 정치이념을 실현해 보려는 데 더 큰 비중을 두

있던 경향이 있다. 그러나 家學의 영향으로 과거에 뜻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한 우계는 “학문의 道는 窮理보다 먼저 힘이 없고, 窮理의 요체는 반드시 독서에 있으며, 독서는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하여 독서의 목적을 이치를 궁구하여 도를 구하는 데 두고 있다. 우계는 학문에 있어서는 도와 구현에 뜻을 두고, 인격수양에 있어서는 성현을 본받아 이를 반드시 실제의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실천주의와 도학주의 사상을 근저로 하는 자기 완성 과 求道에 독서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독서의 과정

우계는 배우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읽고 수양해야 할 독서과정을 선정해 주고 있다. 이는 士朝 鄭宗溟에게 보낸 서한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필독서로서 “小學→大學→大學或問→論語→孟子→中庸→中庸或問→近思錄→朱子書節要→心經→詩→書→易→春秋→禮記→二程全書→朱子大全→伊洛淵源錄→延平答問→理學通錄→通鑑綱目→續綱目→皇明通記” 등의 經, 史, 子, 集의 전 분야에 걸쳐서 23종의 독서과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3) 독서의 방법

독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배우는 자들이 지켜야 할 준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 권의 책을 읽을 읽음에 하루에 한 구 한 단락을 읽고, 한 단락을 완전히 깨달은 후에 비야흐로 다른 한 단락을 바꾸어 읽으며, 한 권의 책을 모두 다 읽은 다음에 다른 한 책을 바꾸어 읽는데, 먼저 虛心·平氣·

熟讀·靜思를 필요로 한다. 一字·一句 모두 분명하게 깨닫고, 諸家의 註解를 하나하나 통달한 후에야 가히 그 是非를 비교할 수 있고, 성현의 말씀의 본 뜻을 깨달을 수 있다. 비록 이미 그것을 깨달았을지라도 또 다시 반복하고 음미하여 그 의리를 깨달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여야만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牛溪先生集』, 장14a 「答未谷之書」).

여기서 허심(虛心)이란 독자의 사사로운 뜻이나 주견(主見)을 내세우지 말고 빈 마음으로 성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체찰하고 체득해 나가는 것, 平氣는 평온한 마음으로 글의 뜻을 음미해 나아간다는 것, 숙독(熟讀)이란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음으로서 저절로 암기되고 체득되도록 하는 것, 정사(靜思)란 어떠한 문 의(文義)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깨우치게 하는 것, 그리고 체찰(體察)이란 성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체험과 성찰을 통해서 체득해 나아간다는 의미로서 이들을 독서방법의 요체로 들고 있다. 이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대별해 보면 漸進解義, 熟讀·靜思, 虛心, 體察, 平氣의 독서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계는 진정한 독서와 올바른 도리를 깨닫고 성찰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들에게 단정하고 공경한 몸가짐과 평온한 마음의 유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독서의 한 방법 이라기 보다는 배우는 자들의 학문이나 독서에 임하는 자세로서, 육체적 정신적 올바른 자세의 확립과 일치를 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우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계는 「書室儀」라는 준칙을 정하여 반드시 숙지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의 내용은 청결·정리정돈, 단정한 몸가짐, 공경·겸손, 잡담금지 및 언행신중, 반

복·체험학습, 어른공경, 바른글씨, 질의토론, 거동신중, 출입자제 등으로 대략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도서관에서나 강의실에서의 배우는 자들의 예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우계 성혼의 도서관을 통해 조선 중기 사림도학파의 도서관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림도학파의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주자의 도서관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서관은 독서의 목적을 성현의 뜻을 파악해 도리(道理)를 실현하는 데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학주의형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도학주의 도서관은 학문을 할 때에는 道에 뜻을 두고 인격을 수양할 때에는 성인(聖人)에 뜻을 두어야 한다는 주자의 뜻을 본받은 것으로 이법(理法)의 발현(發現)과 자기(自己)의 완성(完成)에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도서관은 성리학적 이념과 봉건적 차례질서(次第秩序)를 근간으로 하던 당시 조선현실의 요구에 부응하여 성립된 것으로, 조선전기 관료사장파들의 입신양명형의 도서관이나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문제해결형의 도서관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둘째, 이러한 도학주의형의 도서관은 유교의 기본이념인 “修己·治人” 가운데에 수기(修己)라는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서의 목적을 자기의 완성에 두고, 인격 수양을 위해 도움이 되는 책들을 더욱 중요시하여 권하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들의 글에서 보이는 “體認”, “體察”, “體驗”이라는 표현은 理法의 自己化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修己에 관심을 가졌는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말들이다. 이러한 점은 “독서의 혜택은 四海에 미쳐야 되고, 그 공은 만세에 드리우라”(燕巖集, 卷10, 「原土」)고 하여 상대적으로 治人에 더 관심을 가졌던 실학자들의 도서관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셋째, 사림도학파들의 독서론에는 好古主義的 價値觀이 개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서를 할 때 聖經賢傳을 비롯한 여러 책을 널리 읽고 깊이 생각하되, 자기의 견해나 생각을 내세워서는 안되고 옛 글을 자기 마음대로 침식해서는 안되다는 것은, 자칫 책을 읽는 후대 사람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나 독창적인 이론전개를 억압할 수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隨時變易의 동태적·사실주의적 사고방식과 대조가 된다.

넷째, 이들은 모두 독서방법으로 精讀과 熟讀을 들고 있고, 특히 우계 성혼은 배우는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로 「書室儀」라는 준칙을 정하여 이를 숙지하여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숙독(熟讀)과 정독(精讀)은 실학자들과도 일치하고 있다(김영 1989, 223-224).

3.2 실학자들의 독서론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은 조선조 성리학자들의 도학주의적 학문경향과 대비되는 실천적 학문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독서론은 성리학자들의 그것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실학자들이 독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은 대략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당시까지 양반사대부와 그들 자체들의 공부하는 방향이 과거급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실사회나 민생

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시문 위주로 흘러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조선조 성리학자들은 관념적 사상체계인 주자학에 배타적으로 집착했기 때문에 다른 사상과 학문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독서 범위가 좁아지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현실적 적합성을 잃어버리고 부화하고 협애해진 독서경향에 대해서 실학자들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본고에서는 실학자 중 실학의 포문을 연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이용후생학파의 중심 인물로서 사대부로서 사(士) 의식이 강했던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과 감서치(看書痴)라 불릴만큼 책읽기를 즐겨했던 형암(炯庵) 이덕무(李德懋)와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독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실학자 담헌 홍대용(1731~1783)은 당시 선비들이 이론만 숭상하고 실행실용(實行實用)을 방치하는 학문 풍토를 비판하면서 실천적 학문을 추구하였다. 담헌 홍대용도 조선시대 여느 학인들과 같이 학문목표를 수기치인(修己治人)에다 두고, 전통적인 유학을 공부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의 글 중에는 經傳에 대한 연구(研究)성과들인 心性問, 小學問題를 비롯한 四書問辨, 三經問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저작들은 그의 전통학문에 대한 이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최철 외 1988, 399-413).

1) 독서의 목적

담헌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과 재주를 계발하

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하는데, 독서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독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고, 독서의 즐거움과 공부하는 보람을 느끼기까지에는 많은 괴로움이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괴롭고 어렵다고 해서 책읽기를 그만두고, 일시적 편의를 찾아 구차스럽게 편안히 지내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재주를 버리게 되고, 평생 고루한 데에 떨어지고 만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독서하는 사람은 먼저 독서의 즐거움을 체득할 때까지는 독서하는 데 생기는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천하에 영재가 적은 것이 아니지만 과거공부와 이기적인 물욕과 인일한 학문태도가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참된 의미의 독서는 사회적 실천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글을 읽되 만약 내 몸에 실제로 체험을 해보지 아니하면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되고 마니, 이렇게 되면 아무 실효가 없다. 그리고 매양 글을 한 장 읽으면 곧 스스로 내가 이 구절에 대하여 얼마만큼 실천을 하였는가 하고 반성을 하며 조금밖에 실천을 못하였으면 또 그 두 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 쉬지 않고 힘써 나아가야만 결국 정말로 힘을 쌓음이 오래되어 저절로 성숙하게 될 것이다 (『湛軒書』, 「外集」, 卷1, 〈與梅幹書〉).

독서의 목적은 바로 진리를 밝혀 일에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서에서의 실천적 체험을 강조한 담헌은 독서를 해서 능히 정밀하게 읽고, 익숙하게 강구해서 적실하게 보고

참되게 알게 된다면, 책이란 소용없는 휴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니, 묶어서 다락에 집어넣어 두어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독서에서의 정밀하고 익숙하며 적실하고 참된 경지는 성인들도 다 이르지 못할 정도로 한정이 없어서 독서는 학문하는 사람이 종신토록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들의 독서는 거칠게 섭렵하여 읽다 밀다 하고 있다. 아직 정밀하고 익숙하지 않는데 어찌 적실하고 참됨을 논하겠는가. 그 독서하는 공력이 이와 같아서, 책 한권을 읽게 되면 곧 내 일은 이미 끝났다고 하여, 미친듯이 날뛰며 망령되어 행동하기를 기탄없이 하여, 독서를 끝낸 뒤에 곧 이것을 실행해야 할 큰일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德軒書』, 「外集」, 卷1, 〈與梅幹書〉).

독서를 해서 얻은 진리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 실천해서, 헛터를 끌고루 입히려고 하는 이러한 담헌의 독서관은 바로 실학자 특유의 문제해결형 독서관이라 할 수 있다.

2) 독서의 방법

담헌은 학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독자적인 철학적 방법으로 철리(哲理)를 궁구하였는데 독서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처음 학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독서법으로는 매일 스승으로부터 배운 기본적인 것을 정밀하게 외는 방법을 권하고, 책을 읽을 때 음독(音讀)에 착오가 없이 한 뒤에 비로소 '산표(算表: 읽은 횟수를 나타내는 계산표)'를 세우고, 먼저 한 번 읽고, 그 다음 한 번 외고 그 다음 한번 보며, 한 번 보고 나서는 다시 먼것번

의 순서대로 되풀이하여 모두 30~40번을 읽고 나서 그치며 전에 읽은 것도 3~4번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독서법을 제시하고 있다.

무릇 글을 읽을 때에는 높은 소리로 읽는 것이 좋지 않다. 소리가 높으면 기운이 떨어진다. 눈을 떠 데로 둘러고 안되니, 눈이 떠 데에 있으면 마음이 떠 데로 달아난다. 몸을 흔들어도 안 된다. 몸이 흔들이면 정신이 흩어진다. 무릇 글을 읽 때에는 소란하지 말아야 하고 중박하지 말아야 하며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급하게 하면 조급하고 사나워서 맛이 짧다. 너무 느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느리면 정신이 헤이하고 방탕해져서 생각이 뜬다. 무릇 글을 볼 때에는 글을 마음속으로 외면서 그 뜻을 완미하면서 찾되, 주석을 참고하여 마음을 전일하게 갖고 궁구해야 한다. 만약 한갓 보기만 하고 마음을 두지 않으면 또한 이익이 없다(『德軒書』, 「外集」, 卷1, 〈與梅幹書〉).

담헌은 옛 성현들의 글을 읽어 거기에서 얻은 지혜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고 변통하느냐 하는 것이 독서의 본령이라고 지적하면서, 책을 읽을 때, 자기의 주체적 시각으로 글 쓴 사람의 뜻을 완전히 파악해서, 그 책에 담겨 있는 정신과 지혜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실천을 할 때 자유자재로 응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담헌은 이와 같이 자기의 주체적인 시각에서, 현실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골라 완전히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독서법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담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서 가운데서도 경세에 유용한 이론을 담고 있는 책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당시의 현실문제를 타계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책으로 율곡 이이의 『聖學輯要』와 실학의 비조인 磻溪 柳馨遠의 『磻溪隨錄』을 꼽았다.

(2)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연암 박지원(1737~1805)은 그의 한문소설 『양반전(兩班傳)』에서 양반을 정의하기를 “維 剛兩班, 名謂多端, 讀書曰士 有德爲君子, 武階列西, 文秩敘東, 是爲兩班”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중 “讀書曰士”라는 구절에서 선비의 독서관을 엿볼 수 있다. 연암은 선비(士)의 역할을 이용후생의 실천적 학문을 가지고 민중의 생활향상을 위해 공헌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선비(士)가 추구해야 될 지식은 지배의 지식이 아니라, 민중을 봉건적 억압의 굴레-특히 경제적 궁핍-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는 해방의 지식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연암은 실천적 학문을 추구했기 때문에 책을 읽고 공부하던 자세는 기존의 양반사대부들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김영 1986, 133-154)

1) 독서의 목적

연암의 독서관은 “利民釋物”하는 실천적 독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선비가 독서를 해서 이론탐구한 성과가 자기의 입신출세나 명예같은 자기욕망의 충족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그 혜택이 四海에 미치고 그 功이 만세에 드리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 독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릇 독서는 장차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文術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인가, 文書를 넓히기 위한인가, 학문을 講究하고 道를 논하는 것은 독서의 事요, 孝悌

하고 忠信하는 것은 講學의 實이며, 禮樂刑政은 講學의 用이다. 독서를 하면서도 실용할 줄을 모르면 참된 講學이 아니며, 講學에서 귀하게 여기는 점은 그 實用을 행하는 데 있다(『燕巖集』, 卷10, 「原土」).

연암은 흥미를 위주로 한 수박 겉핥기식의 독서를 해서는 안되고, 그 책을 쓴 사람의 고심(苦心)한 자취를 헤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선독서(善讀書)’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연암이 말하는 ‘선독서자(善讀書者)’는 우리가 보통 책을 잘 읽는다고 하는 사람, 예컨대 소리를 잘 내거나 구두를 잘 짚거나 旨義를 잘 해독하거나 談說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책을 쓴 사람의 정신을 읽을 줄 알고, 거기에서 얻은 지혜를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용할 줄 아는 “지변(知變)”의 인물을 말한다.

이렇게 실천적 문제의식을 갖고 독서할 것을 강조한 연암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경서(經書)를 새로 읽고 농·공·상의 복리증진을 위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學)과 기술(技術)을 연구하였다. 그는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實用의 學을 전개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經書를 실천적인 각도에서 재해석한다. 그가 특히 주목한 경서는 書經인데, 그 가운데서도 善政과 養民을 강조한 「大禹謨」를 이런 각도에서 되새겨 보았다. 이 「大禹謨」는 養民의 근본은 水·火·金·木·土·穀(6府)을 잘 다스리는데 있으며, 正德·利用·厚生(3事)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善政의 요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암은 이 대목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성격에 주목하여 水·火·金·木·土의 五行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正德·利用

·厚生 가운데서 利用厚生에 액센트를 두어 “利用厚生, 可以厚生, 厚生然後, 德可以正矣”라는 논리를 마련하였다.

2) 독서의 방법

연암은 이러한 독서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노력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과정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바른 선비는 어린 이같이 뜻을 오롯이 하고 처녀가 몸을 지키듯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일정한 해를 마칠 때까지 문을 닫아걸고 옛 경전과 역사책, 그리고 농·공·상의 理致 등을 공부하여 현실타개를 위한 이론을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실제의 체험을 통해서 선진문물을 수용해 당시의 정체된 사회를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집중적인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課程이 필요하다고 했다.

독서하는 방법에는 課程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며 질질 끄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燕巖集』, 卷10, 「原土」).

제군들이 나를 따라 공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정해놓고, 매일 경서 한 장과 강목 한 단을 읽되,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익히 외우고 깊이 생각하며, 어려운 대목은 토론해서 잘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燕巖集』, 卷10, 「原土」).

독서를 할 때에는 이것저것 닦치는 대로 많이만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으며,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나쁜다는 것이다. 독서를 할 때 한꺼번에 많이 읽으

려고 탐내거나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공부할 양을 정해놓고 날로 미쳐 익히면 뜻이 情해지고, 義가 밝아지며, 품이 농해지고, 意가 익혀져서 자연히 외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독서의 차제라고 하였다.

(3) 형암(炯庵) 이덕무(李德懋)

형암 이덕무(1741~1793)는 연암 박지원(1737~1805), 담헌 홍대용(1731~1783), 楚亭 박제가(1750~1806), 冷濟 柳得恭(1748~1807) 등과 함께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늘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함으로써 사상적으로뿐 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가깝게 지내며 그들과 함께 이용후생학파를 이루었다(김영 1983, 109-127)

1) 독서의 목적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서도 형암만큼 책을 좋아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덕무는 책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책읽기를 너무 좋아해서 눈에 병이 나 친구들로부터 책병이 들었다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看書痴(책만 읽는 명칭이)’ 라고 해도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아무도 그의 전기를 짓는 이가 없어 이에 붓을 떨쳐 그 일을 써서 『看書痴傳』을 지을 정도였다고 한다(정민 2001).

士君子가 한가로이 지내면서 할 일도 없을 적에 독서조차 하지 않는다면 다시 무엇을 하랴. 독서하지 않게 되면 작게는 정신없이 잠이나 자거나 노름이나 하게 되고, 크게는 남을 비방하는 일이나 돈벌이와 여색에 힘쓰게 된다. 슬프도다. 그러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독서를 할 따름이다(『靑蔭館全書』, 卷 50).

라고 하여 선비가 한가할 때 책을 읽지 않으면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헛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은 오직 독서뿐이라고 하였다.

2) 독서의 방법

형암은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다독주의의 입장이면서도, 그 글의 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박이정(博而精)의 독서법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책을 읽을 때, 외우는 것보다는 뜻을 이해할 것을 주장하였다.

형암은 독서를 하다 유익한 점 한 네 가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첫째, 굶주린 때에 책을 읽으면 소리가 배에 낭랑하여 그 理致와 旨趣를 잘 맛보게 되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둘째, 차츰 날씨가 추워질 때 읽게 되면 기운이 소리를 따라 유전하여 체내가 편안하여 추위를 잊을 수가 있게 되며, 셋째, 근심·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눈은 글자에 마음은 이치에 집중시켜 읽으면 천만 가지 생각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고, 넷째, 감기를 앓을 때에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하여 부딪힘이 없게 되어 기침소리가 갑자기 그쳐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유익한 점이 있는 독서를 사람들이 게을리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독서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다.

만약 덤지도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으며, 배부르지도 않고 마음이 화평하여 기쁘고 몸고 건강한 데다

가 등불이 환하고 書帙이 정돈되어 있고, 책상과 자리가 깨끗하면 독서할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더구나 뜻이 높고, 재주가 통달하고 나이가 젊고 건강한 기운을 겸비한 사람으로 독서하지 않는다면 다시 무엇을 하겠는가. 무릇 뜻이 나와 같은 사람은 힘쓸지어다(『靑蔭館全書』, 卷 50).

형암의 독서론은 정치·경제적인 개혁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학문과 교육을 통해 실학을 이루려고 했던 그의 학문적 자세의 소산으로 청대의 고증학의 일정한 영향하에, 조선조 유학자들의 도학주의적 독서관에서, 다산에 이르러 확고해진 문제해결형의 독서관으로 이행하고 있던 당시의 독서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자로 많은 학문과 사상적 업적을 남겼다. 특히 다산은 당시의 폐쇄한 사회를 개혁하려 했던 경세치용의 사상가로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학문적 대결을 했던 유가적인 독서학인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산은 네 살 때 千字文을 배운 이래 열 살에 벌써 經書, 史書, 古文을 열심히 공부했던 호문지사(好文之士)로서 유배지에서조차 다산초당(茶山草堂)의 동쪽과 서쪽에 따로 공부할 집을 짓고 수천 권의 장서를 쌓아 두고 독서와 저서를 하며 지냈다(김영 1981, 104-117)

1) 독서의 목적

(독서할 때는) 먼저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확고하게 한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지고 못 다스려지고는 이유의 근원

을 알아야 하며, 또 반드시 實用的 學問에 뜻을 두어서 옛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서 만민을 운택하게 하고 만물을 번성하게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에야 비로소 올바른 독서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與齋堂全書』, 第1集, 卷21, 張4, 「寄二兒」).

이 글은 다산이 강진에 귀양가 있던 때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이다. 이를 통해 다산의 독서목적은 현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입신출세하는 데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문제와 역사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독서의 과정

실학의 집대성자 다산 정약용이 읽으라고 권한 책들은 대체로 두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 계열은 자기 몸을 갈고 다듬는데 필요한 책들이고 다른 한 계열은 세상을 바로 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필요한 책들이다. 먼저 자기를 갈고 다듬는 수기(修己)를 위한 책들로는 大學, 論語, 孟子, 中庸의 四書와 詩經, 書經, 周易, 禮記, 春秋, 樂記의 六經을 들고 있다. 다산은 사람이 천하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기지학(修己之學)의 요체인 유가경전을 연마해서 밀바탕을 튼튼히 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자기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한 수행은 사회활동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올바른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것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데 필요한 책들은 우리 민족이 딛고 서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책과 우리 나라의 옛 문헌과 문집과 같이 경세치용(經世致用)에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하고 있다. 먼저 역사책으로는 三國史記, 高麗史, 輿地勝覽, 國朝寶鑑, 懲愆錄, 練藜室記述 등을 들고, 옛 문헌과 문집 가운데 세상을 경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는 退溪集, 栗谷集, 西厓集, 白沙集, 李忠武公全書, 礪溪隱錄, 星湖說, 海東名臣錄, 朝野粹言, 日纂, 文獻通考 등을 들고 있다. 다산은 물론 유학의 기본서인 朱子全書와 史記, 十七史, 杜工部集, 左傳 등과 같은 중국의 중요 서적들도 빠트리지 말고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전기 사대부들이 으레 책이라고 하면 중국책을 중심으로 논하는데 비해 다산은 우리나라의 역사책과 문헌을 중요시했다는 사실이다. 다산은 양반사대부들이 우리나라의 문헌과 역사는 무시하고 자기의 박학다식을 자랑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중국의 고사나 시구를 인용하는 당시의 지적 풍토가 큰 병통이고 비루한 문풍이라고 비판하였다.

다산은 이와 같이 그 당시 조선 현실이라는 주체적 입장에 서서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려 했기 때문에 위에 열거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책들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하며 시를 쓸 때에도 중국의 고사나 시구만 인용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역사서나 문집에서 사실을 뽑아내고 그 지방의 특색을 고찰하여 시에 인용해야 좋은 시가 나온다고 했다.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즐겨 조선시를 짓겠다고 선언하고 책을 읽더라도 우리나라의 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선진 문화국의 중요 저작들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고 한 다산의 관점은 오늘날 우리 지식인들

도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독서의 방법

다산은 훌륭한 독서를 위해서는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자기의 문제의식 내지 주전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봐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根基를 세운 뒤에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다산은 이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대충 생각해 보았는데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하는 것은 하루에 천백 편을 읽어도 오히려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독서라는 것은 도중에 名義를 모르는 글자를 만날 때마다 넓게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한 종류의 책을 읽는다면 곁들여 수백 가지의 책을 뒤적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읽어야 읽는 책의 義理를 효연하게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 깊이 명심해야 한다(『與猶堂全書』, 第1集, 卷21, 張21, 「奇遊兒」).

책을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가는 것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읽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책을 읽어 가다가 중요한 개념이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서적들을 참고해서 세밀하게 연구함으로써 그 책의 근본 뿌리를 캐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史記의 「자용전(姿容傳)」 같은 것을 읽을 때에 조취도(祖軌道)라는 글을 보면, 祖의 뜻이 무엇이며 그러한 제사에 꼭 祖를 써

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字書에서 찾아보아야 하고, 字書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책을 들추어 그 글자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고찰해 보고, 그 근본된 뜻만 아니라 지엽적인 뜻도 철해 놓고 通典이나 通志, 通考 등의 책에서 祖祭의 용례를 살펴서 정리해 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에는 조제에 대해서 한 가지도 모르던 사람이 그 내력까지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비록 큰 선비라 할지라도 조제 한 가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알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다산은 讀書의 方法으로 책을 닦치는 대로 많이 읽는 남독(濫讀)보다는 책을 깊이 읽고 세밀하게 읽는 精讀을 택했다. 다산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정독의 구체적 方法論까지 제시하였다. 그것이 바로 “초서지법(鈔書之法)”이다.

초서(鈔書)란 큰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산은 책을 읽을 때 초서(抄書)하기에 힘써서 게으름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초서를 할 때에는 우선 자기 자신의 학문에 대한 입장이 뚜렷해야 하며, 그래야 판단기준이 마음에 세워져 취사선택하는 일이 용이하다고 했다. 자기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곳을 발췌하고, 그것을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글을 쓸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 그 요점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것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두는 것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작업인데, 다산은 특히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부지런히 해둘 것을 강조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온축(蘊蓄)이 있는 다음에 글을 써야 두고두고 읽히는 저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전에 史記를 읽고 스스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龜亭林이 사기를 읽을 때 本紀나 列傳篇을 읽으면서는 손을 대지 않는 듯 대강 읽고는 年表나 月表편을 읽으면서는 손때가 까맣게 되었다 했으니 그런 것이 제대로 역사책을 읽는 방법이다. 紀年兒覽, 大事記, 歷代年表와 같은 책에서는 반드시 범례를 상세히 읽어보고 國朝實錄에서 뽑아 연표를 만들고 더러는 大事記나 押海家乘에서 뽑아 연표를 만들어 중국의 연호와 여러 나라들의 임금들이 자리에 오른 햇수를 자세히 고찰하여 책으로 만들어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 일이나 선조들의 일에 있어서 그 큰 줄거리를 알게 되는 일에도 도움이 되어 시대의 앞과 뒤를 구별하게 된다(『與猶堂全書』, 第1集, 卷21, 張22, 「奇遊兒」).

제대로 역사책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관계 문헌들에서 事績들의 연대를 뽑고, 임금의 재위기간을 고찰해서 年表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시대의 先後 및 우리 나라의 역사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교할 수도 있고, 모르는 연대를 상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茶山의 實證的인 學問姿勢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實證的인 論理를 展開하여 급기야 우리 민족사상 가장 값진 정신적 유산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3.3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성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독서관은 독서를 이치를 궁리하기 위한 학문의 과정 그 자체로 보고 있으며, 독서의 목적을 이치 궁구는 물론 자기 완성과 구도(求道)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 교양과 지식 함양을 위하고, 필요한 정보의 습득을 위한 독서, 그리고 단순한 흥미를 위한 독서와는 그 목적이 다른 치학(治學), 즉 학문의 과정 그 자체에 독서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서의 방법도 읽을 책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순서를 정해 놓았으며, 또한 책 읽는 자세는 곧 도(道)를 실천하는 자세로 정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각 개인의 능력에 맞게 독서(공부)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통적인 독서의 방법론은 오늘날의 발달단계에 따른 독서방법과 개인차를 존중하는 인간중심 교육관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독서를 바탕으로 글쓰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다.

박충원(朴忠元)은 글을 지을 때 초고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고는 종이 한장을 펴 들고, 혹 점 하나를 엮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며, 꺾어진 획을 쓰거나, '비록 그러나(雖然)'라는 글자나 '오호라(嗚呼)' 같은 글자를 쓰기도 한다. 그런 뒤에 또박 또박 시험 답안지에 쓰는데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물었더니 말하기를 "무릇 글을 지움에 어려운 것은 뜻을 세우는 것이다. 문자에 이르러서는 붓 아래 있다"고 했다. 유몽인의 「어유야담」에 나오는 이야기다. 박충원은 어려운 것이 뜻을 세우는 일이고, 문장을 엮는 것은 손쉬운 일이라고 했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주제를 정한다는 말이고, 문장을 엮는다는 것은 이른바 글의 구성을 말한다. 마음속에 정해둔 생각이 분명하면 글을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정민 2001, 8).

옛사람들은 이처럼 글을 쓸 때도 뜻을 세우는

것이 어려우며 글을 쓰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옛 사람들의 독서는 독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 즉 '득력(得力)' 하는 것을 중시했다.

득력을 위한 책이라면 옛날에는 유가경전이 최우선이고, 이 경전은 반드시 암송해야 했다. 그뿐 아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역사 책을, 문장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문장을 역시 경전처럼 암송했다. 서산(書算)을 이용해 자기가 몇 번을 읽었는지 확인하면서 소리내어 글을 읽었다. 이런 전통적 독서법을 '독서정한(讀書定限)'의 관례에서도 또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 독서정한이란 읽어야 할 책의 종류와 읽는 순서, 읽는 수효 즉 독수(讀數), 독서의 기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것은 독서를 계획적으로 하는 규정사항이다(안대회 2001, 26)

이러한 계획적인 독서의 예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글에서 적지 않게 발견된다. 사서삼경을 암송할 과정을 적은 이 재(李裁)의 『서사윤송(書社輪誦)』 1권이 그런 종류의 책이다. 홍길주(洪吉周)는 『숙수념(熟遂念)』의 「사부송유(四部誦惟)」편에서 암송해야 할 글의 목록과 읽어야 할 책의 순서, 과목, 시단, 자세를 목록으로 만들어 실천했다. 그 뿐 아니다. 18세기의 학자 유만주(兪晩柱)는 『흠영(欽英)』이란 실로 방대한 독서일기를 남겼다. 이 책에서는 암송해야 할 책은 몇 번 읽었는지 꼼꼼히 밝혔고, 거저(巨著)인 경우에는 날마다 얼마씩 읽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기록해 놓았다. 장구한 독서계획을 세워서 책을 읽고, 저서 역시 계획적 구도에 의해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안대회 2001, 27)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옛 사람들의 독서 방법은 책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숙독(熟讀)'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정한(讀書定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독서법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옛 선조들의 독서에 임하는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민 교수는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우리는 고전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방법은 옛 것을 모방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이백이나 두보, 사마천이 되기 위해서는 사마천이나 이백, 두보를 열심히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만들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마천이며, 이백이고 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글을 써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고전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 시대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어야만 고전이 됩니다.”(정민 2001)라며 과거의 것을 묵수하고 고수하는 것만이 고전이 아니라, 자기시대에 맞는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설령 시련과 도전의 과정일지라도 자기 목소리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옛 선현의 정신은 이어받되 시대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재해석과 창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4. 시대에 맞는 독서론을 개발하자

오늘의 독서환경이나 독서인구, 독서자료는 옛날과 비교할 수도 없이 풍족하다. 그런데 왜 요즘에 와서 우리는 책읽기에 대한 걱정을 하

는가?

시대 흐름에 따라 그 시대상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형이 다르고 이에 따라 사회 문화가 형성된다. 옛 사람들의 학문하는 사람들의 시대적 임무와 오늘날 요구되는 학문하는 자들의 임무는 분명 다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의 중기와 후기만 보더라도 중기의 사림도학파들의 수기(修己)에 치중한 학풍과 독서관은 상대적으로 치인(治人)에 비중을 두었던 후기의 실학자들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는 분명 계층사회였고, 양반중심의 사회였으며, 나라에서 숭상하는 학문은 유학이었으며, 한글이 창제된 후에도 지식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자는 한문이었으며, 그러한 한문을 읽고 쓸 수 있는 계층은 극소수였다. 반면, 오늘날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며, 국민 교육시대이고, 한글이 통용되는 시대이며, 문맹률도 10%내외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다양하고 풍부한 매체에 의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다각적으로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요즘이 독서를 더 잘 할 수 있는 조건같지만, 오늘날의 독서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4.1 오늘날 독서의 의의와 목적

그렇다면, 오늘날 독서의 의의와 목적은 무엇일까.

독서의 목적은 크게 교양 함양과 지식·정보의 획득, 흥미와 오락을 위한 독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에서 교양이나 흥미와 오락적 요소는 다른 매체들에게 점점 자리를 내 주고 있다. 즉 대중매체와 전자 매체가 그것이다. 그나마 지식·정보획득 수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한데, 이것도 역시 전자매체에 많이 의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더 깊게 생각해 볼 문제는 독서의 매체가 반드시 책이어야 하는가이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나는 여기서 독서의 폭을 좀더 넓히기를 희망한다. 오늘날 새로운 매체의 다양한 출현으로 지식과 정보의 생산단계부터가 옛날의 아날로그 방식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매체로 생산,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는 독자들도 다양한 매체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 독자에게 요구되는 독서능력은 책읽기 능력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매체교육도 독서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기본은 책읽기이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세우는 일'이다. 여기에 반드시 사고작용이 필요한데, 다른 어떤 매체보다 책읽기는 이러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책읽기는 곧 '생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능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능력은 내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 옛 사람들이 독서를 '득력(得力)'의 수단으로 여겼듯이 이는 오늘날도 유효하다. 따라서 나는 오늘날

책읽기는 “‘생각하기’를 통한 ‘자기 변화의 과정’으로서 ‘평생 자기 학습의 수단’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4.2 오늘날 독서의 방법

앞서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의 과정과 구체적인 독서의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어떤 책을 어떤 시기에 읽을 것인가를 살펴보자. 오늘날 다종 다양하고 다량의 책과 매체 속에서 필요한 자료 찾는다는 것 자체가 모래알에서 금을 찾는 일처럼 어렵고도 헛되게까지 생각된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그러한 수고로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책을 선정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브루노 베텔하임의 용어를 빌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책’을 우선 권한다. “만약 우리가 하루하루를 덧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존재로서의 나를 의식하면서 살고 싶다면 가장 절실한 과제는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일 것이다. ... 삶의 의미란 특정한 나이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어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해되는 것도 아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정신적 성숙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정신적 성숙은 오랜 시일에 걸친 자아 발전의 최종 결과이다. 그러므로 나이를 먹으면서 그때마다의 정신연령과 이해수준에 알맞게 고민하며 탐색한 의미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삶의 의미가 찾아지는 것이다.”(베텔하임 1998, 13)라며, 베텔하임은 여기서 우리의 무의식(전자아)-의식(자아)-초의식(초자아)가 옛이야기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놓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인간은 계속적인 정신적 성장을 하는 데 이에 필요한 자양분이 되는 책들을 읽어야 한다. 삶의 의미는 각 개인마다 각기 다르게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책들 또는 매체들 속에서 이러한 개인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힘이 되는 것들을 꼼꼼히 가려내는 일을 우리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나서 각 나이에 따른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자료의 리스트가 다각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까지의 추천목록처럼 일부 지식인들 개인의 취향에 부합된 추천도서 목록이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 발달단계에 따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체계적인 리스트들이 각 전문 분야별로 나와야 한다. 이는 독서가 단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국어 능력을 기르는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읽어내는 여러 가지 코드(기호)를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여러 매체를 넘나드는 오늘날의 독서는 옛날처럼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읽고 쓰고 말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진정한 독서인, 문화인으로서의 기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독서방법과 과정이 전사회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시점이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성리학이 성립되어 실학사상으로 발전된 조선 중기와 후기 실학자들이 여러 문헌상에 남긴 독서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성리학이 성립되기 이전의 입신

출세형의 조선전기와 성리학이 조선의 중심 사상으로 도학주의를 표방했던 중기와 성리학을 바탕으로 청의 양명학이나 서학이 유입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독서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분명히 달랐다. 또한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독서에 임하는 숭고한 정신만은 모두 하나임을 또한 읽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독서론의 특징이 있다면 (학문)생활과 독서의 일체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목적이 무엇보다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 과학

적인 독서이론 못지 않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독서방법과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선현들의 독서론을 살펴면서 외국의 독서이론에 주눅이 들었던 마음 한 칸이 조금은 펴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더 이상 '책을 읽읍시다'라는 구호와 운동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그러려면 우선 독서가 이론 이전에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 삶은 곧 변화의 연속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책읽기의 전통이 앞의 실천이 중시되었던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으로부터 이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金 永. 1981. 丁茶山の 讀書論. 『강원대학교논문집』, 15: 104-117.
- 金 永. 1983. 李德懋의 讀書論. 『東方學志』, 36·37: 109-127.
- 金 永. 1986. 燕巖의 『士』意識과 讀書論. 『東方學志』, 53: 133-154.
- 金 永. 1989. 朝鮮時代 讀書論 研究: 退溪와 栗谷의 경우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12: 203-225.
- 金 永. 1993. 『朝鮮後期 漢文學의 社會的 意味』. 서울: 집문당.
- 김오봉. 1996. 白水 楊應秀의 讀書論에 관한 研究. 『문헌정보학』, 7: 89-143.
- 김오봉. 1997. 牛溪 成渾의 讀書論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14: 123-160.
- 베델하임, 브루노. 1998. 『옛이야기의 매력 1』. 김옥순·주옥 옮김. 서울: 시공주니어.
- 심우준. 1974. 주자의 『問學問』中 讀書論. 『文耕』, 33: 229.-237.
- 안대회. 2001. 열 번 읽었을 때는 한번 읽었을 때와는 다르다. 『출판저널』, 제306호. 7월 20일.
- 윤병태. 1978. 澤堂 李植과 그의 讀書觀. 『도협월보』, 19: 11-15.
- 李尙鏞. 1994. 『“讀書論,” 淵泉 洪奭周의 서지 관계 저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 민. 2001. 뜻을 세우는 일이 문장을 엮는 일보다 어려운 법이다. 『출판저널』, 제298호. 3월 5일.
- 정 민. 책벌레 이야기: 看書痴傳/ 李德懋. 한국한문학회홈페이지[cited 2001. 11. 26] <http://www.hykorea.net/k.../study_print.asp?num=15>

정 민. 코끼리아기사를 통해 연암과 예코 만나
기. 한국한문학회홈페이지[cited 2001.
11. 26]
(<http://www.hykorea.net/k.../stu>

[dy_print.asp?num=15](#))

최 철 외편. 1988. 『朝鮮組後期文學과 實學思
想』. 서울: 정음사.